

꺾막힌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 길 뚫었다

국회 예산 본회의 통과
광주 3대 현안사업 전향

세계수영대회 반납 위기 넘겨
80억 증액 문화전당 운영 승통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됐던 광주시 최대 현안사업들이 2일 국회에서 일부 반영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청년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3년이 지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히면서 예산 반영이 단 한차례도 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면서 사실상 국비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가까스로 국회에서 30억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의 '물꼬'를 뚫었다. 예초 광주시가 요구했던 353억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지만, 예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착수에 필요한 상징적인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정부의 제3차 예타 점검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경우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내년 본 예산에 단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100만대 사업'은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국회에서 예산안과 정점 법안에 대해 일괄 타결에 합의한 뒤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반영=내년 예산 20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영됨에 따라 자칫 '대회 반납(개최 포기)'이 우려됐던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세계수영대회) 개최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46억원의 국비 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대회 유치 당시 '공문서 위조 논란'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조직위 출범과 사무국 구성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으면서 광주시는 개최권을 포함한 최대 2000억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법으로 명시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무시한 정부를 정치권과 지역 여론 등에서 꾸준히 압박해왔다. 한편,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2019년 7~8월께 열릴 예정이며 전 세계에서 선수와 임원 등 1만2000여명이 참가할 예

정이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사업비 증액=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예산은 494억원에서 80억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80억원은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콘텐츠 개발 등 포괄적인 운영비여서 전당 운영에 다소 승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공식 개관 이후 내년 본 예산에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개관 첫해부터 순항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는 게 힘들고 이례적인데, 이번엔 사업비가 증액 반영되면서 문화전당이 개관 첫 해부터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유기농 인증 면적을 6000ha로 늘리고, 정부의 지원이 끝나는 무농약 4년차 이상 농가에 친환경 직불금 50%를 도별로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과채류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과 대규모 용복합 양식단지 조성 등 농수산 식품의 중국 수출 기반도 확충한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목표와 인근 시·군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융복합벨트도 본격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남도 명품김을 조성하고, 식도락여행 증가에 맞춰 '1시·군 1남도음식거리' 조성을 추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광 도립미술관 착공, 광주와 공동으로 서울갤러리 개관 추진, 작은 영화관 추가 개설,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추가 설치 등의 계획도 내놨다. 호남고속철도 2구간(광주송정~목포)은 내년에 우선 광주송정~고막원 구간부터 건설에 나서 무안공항 통과노선이 채택되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한편 광주~원도 간 고속도로는 광주~강진 선전 구간을 내년 하반기에 우선 착공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속세의 모든 번민 바람 되어 날아가다



(137) 조용필 콘서트

"내 영혼이 떠나간 뒤에/행복한 너는 나를 잊어도/어느 순간 홀로인 듯한/쓸쓸함이 찾아올 거야//바람이 불어오면 귀 기울여봐/작은 일에 행복하고 괴로워하며/고독한 순간들을 그렇게 살다 갔느니/착한 당신 외로워도/바람 소리 생각해지 마..." <조용필 노래 '바람이 전하는 말' 중에서> 생각해 보면, 살면서 나 자신에게 즐

기움을 주거나 스스로를 위해 선물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음주가무를 잘하거나 좋아하지 않아 그것으로 즐거움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장신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물건으로 나를 달래본 적도 없다. 생의 대부분을 정해놓은 규칙대로 가느라 늘 긴장하고, 인내하는 시간이 더 많았기에 문득 나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주말 다녀온 '조용필 콘서트'는 일종의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이 되었다. 특히 청춘의 시절부터 애장했던 '바람이 전하는 말'은 3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광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노래말처럼, 살아가면서 얻은 모든 번민이 바람 되어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다.



김영갑 작 '오름'

가왕의 노래 속 '바람의 말'은 김영갑(1957~2005) 사진작가의 작품 '오름'에서 만나는 바람과 흡사하다. 참나무를 포착한 사진작품이지만 일순간의 모습 이라기보다 시간의 흐름을 압축하여 표현한 타임 랩스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들판의 빛과 바람이 화면에서 일렁이는 듯하다. "그저 아름다운 뿐이다"고 감탄했던 작가는 오름에서 불어오는 영혼의 바람 앞에서 때로 절대고독을, 때로 경외감을 느꼈다고 한다.

제주의 바람에 흘러 카메라 하나 메고 20년간 제주의 풍광과 바람을 찾아다녔던 작가는 바람 지나는 길목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나무와 풀처럼 시련을 온몸으로 견디며 그 자신도 결국 바람이 되었다. 작가는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면서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사진갤러리 '김영갑 갤러리 두모약'을 열었고, '김영갑사진전' 등을 통해 지금도 제주의 바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시·도정 연설서 드러난 내년도 정책 방향

산업발전→청년 일자리...순환 경제 실현 인권침해 예방 '인권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광주시

광주시는 내년도 시정 최우선 가치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맞추기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협의회 구성, 청년창업공간 조성, 창업 특례보증제도 도입 등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시정의 주요 방향으로서는 지역 핵심산업이 발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광주형 순환 경제 실현 등 5가지를 꼽았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살피는 정책 추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시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조성 ▲세계와 교류하고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매력 있는 도시 조성 ▲남북 간, 국가 간, 지역 간 상생과 연대 가속화 등이다. 순환 경제 실현의 핵심도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우선 순위를 둔다는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원스톱 지원과 자동차 R&D 인력양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지도 구축'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내실있는 핵심인력지표 실천을 비롯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인권영향평가제' 등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 조성과 자연을 함께 가꾸는 도시텃밭 조성 사업 등 서로 돕고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도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다.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본격 추진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사업은 내년에 뺄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를 아시아문화교류의 중심지로 만들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도시로 가꾸겠다는 것도 역점사업의 하나다. 윤 시장은 또 추종했던 남북교류 사업 추진과 평화포럼 개최 등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FTA 대비 저비용 고소득 농업 기반 구축 에너지 기업 유치·관광자원 산업화 주력

■전남도

전남도의 내년도 도정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FTA에 대비한 저비용 고소득 농업 기반 구축에 중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관광자원을 산업화하고, 복지 수준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최근 전남도의회 제 3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수출 농어업 기반 확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회복지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밸리와 연계한 에너지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입지보조금 대상 확대 등 투자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대학 안에 취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일정 기간 장려금을 지원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물론 에너지, 생물, 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친환경·수출 농어업 기반 확대를 위해

유기농 인증 면적을 6000ha로 늘리고, 정부의 지원이 끝나는 무농약 4년차 이상 농가에 친환경 직불금 50%를 도별로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과채류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과 대규모 용복합 양식단지 조성 등 농수산 식품의 중국 수출 기반도 확충한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목표와 인근 시·군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융복합벨트도 본격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남도 명품김을 조성하고, 식도락여행 증가에 맞춰 '1시·군 1남도음식거리' 조성을 추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광 도립미술관 착공, 광주와 공동으로 서울갤러리 개관 추진, 작은 영화관 추가 개설,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추가 설치 등의 계획도 내놨다. 호남고속철도 2구간(광주송정~목포)은 내년에 우선 광주송정~고막원 구간부터 건설에 나서 무안공항 통과노선이 채택되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한편 광주~원도 간 고속도로는 광주~강진 선전 구간을 내년 하반기에 우선 착공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녹내장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건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질환

◎ 치료 방법 :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며 만족할 만한 안압하강 효과가 없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과목 : 스미일 / 리석 / 라석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백운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